
발표 4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짜우 스웨 니운트

(미얀마 만달레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짜우 스웨 니운트¹⁾ (미얀마 만달레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미얀마 옷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외 학자들은 주로 예술적, 역사적 관점에서 미얀마 칠기를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미얀마 옷칠의 역사, 옷칠 산업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얀마의 옷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활발하게 행해지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칠기사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다. 그 주된 이유는 칠기 시장의 협소와 자원 부족(노동력과 원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전통 칠기 산업을 보존하고, 그 제작과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미얀마의 무형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칠기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기록하며, 칠기 산업이 오늘날 직면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의 검토, 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칠기 제작자와의 인터뷰, 미얀마 칠기의 다양한 측면을 담은 사진 촬영 그리고 칠기산업에 대한 전망도 이루어졌다. 주로 중점을 둔 조사 지역은 바간(Bagan)과 짜웃까(Kyaukka) 마을이다.

핵심어: 미얀마 옷칠(lacquer in Myanmar), 바간(Bagan)과 짜웃까(Kyaukka), 산업(industry), 생산(production)

서론

미얀마는 세계에서 칠기를 생산하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칠기 산업은 아시아, 그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에만 남아있는 매우 희귀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예술이다. 옷칠 예술은 약 3000년에서 5000년 전 중국에서 기원하여 일본, 한국 그리고 이후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미얀마의 칠기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세 지역이 유명하다. 만달레이(Mandalay)지역의 바간(Bagan), 사가잉(Sagaing)지역의 짜웃까(Kyaukka) 마을 그리고 산(Shan)주이다. 그중에서 나는 바간과 짜웃까 두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전통 칠기 산업을 보존하고 제작과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며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을 소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얀마 칠기 산업의 현황을 알리고 오늘날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미얀마 칠기 산업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며 인터뷰와 국내외 학자들의 저술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다.

- 미얀마의 옷칠예술의 기원과 전승 역사
- 옷칠 산업의 위협요소
- 옷칠 산업의 향후 전망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비과학적 방법론과 국내외 조사보고서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부 출판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역사적 배경

10종의 버마 전통예술 목록에 따르면 칠기는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존속해왔다. 현재 연구자들은 누가 그리고 언제 옷칠 예술을 들여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옷칠”이라는 말은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버마어 사전에 따르면 “윤(Yun)”은 윤족 사람, 칠기 그리고 칠기에 채색 문양을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Burmese Dictionary, 1979, pp. 227-228). 윤족은 중국 남서부와 산-바마(Shan-Bamar), 산-중국(Shan-Chinese), 라오 산(Lao Shan), 캄티산(Khamti Shan), 하리분자야(Haribhunjaya, 태국 북부, 현재 람퐁) 그리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30개 산 부족을 거쳐 태국 요다야(yodaya)에 정착한 몬(Mon)족이다. 그들은 라오스에서 온 몬-크메르(Mon-Khmer)족이라고도 한다(Dagon God, 1996, pp.171-172). 칠기는 청대의 11~13 세기가 전성기였으며, 특히 창샤(Changsha)가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다. 여기서 캄보디아와 라오를 거쳐 다른 국가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Khin Kyi Kyi, 1968, p.50)

옷칠의 기원과 관련하여 버마 칠기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반적인 추정이다. 토 세인 코(Taw Sein Kho)와 우 루 페 윈(U Lu Fe Win)은 1058년 어노여타(Anawrahta) 통치기간에 몬 지역을 정복하면서 피타카(Pitaka)와 함께 예술가와 학자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생각했다. 바간의 우 띵(U Tin) 또한 그 학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떠톤(Thaton)의 전쟁 포로 목록에서 칠기 예술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이론은 16세기 이전에는 옷칠 예술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인나웅(Bayinnaung)왕(1551-1581)이 산주, 진 매(Zin Mae) 그리고 아요다(Ayodhya)를 정복하고 옷칠 예술가를 비롯한 공예장인들을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설은 일반적인 것일 뿐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여러 견해일 뿐이다.

다음은 미얀마 칠기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이다.

- 째싯따(Kyansittha)왕 궁궐 명문의 1~5행에는 “브라민(Brahmin)과 건축가는 두루마리 속의 금색 꽃, 기름 등잔 그리고 다웅랑(daunglan)에 담은 음식 공양을 통해 신에게 존경을 표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Than Tun, 2003, p.59). 다웅랑은 폭이 약 3인치, 높이는 12인치 정도 되는 쟁반으로, 나선으로 곧 대나무로 틀을 만든 것이다. 수많은 작은 수직의 대나무 지지대를 대고, 옷칠이 된 윗부분에는 섬세하게 짠 매트를 깐다.
- 1223년에 쓰여진 쉐쿤차(Shwe Kuncha)탑 명문의 19~20행에는 사리장엄 공간에 놓는 불상에 버밀리온과 옹황의 혼합물과 함께 옷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4)
- 1236년에 쓰여진 서흘러운(Sawhlawun)탑 명문에는 바간족이 옹황과 버밀리온을 혼합하여 옷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8)
- 1247년에 지어진 밍갈라 제디(Mingala Zedi)에는 80개의 불상이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옷칠한 빈랑 상자와 잔을 장식하는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Nyunt Han, 1996, p.20)
- 오래된 칠기잔 조각이 바간의 민난뚜(Minnanthu) 인근에 있는 레메떠나(Laymyethna) 수도원 구역에서 발굴되었다. 이 유물은 제작 시기가 약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han Hteik, 2004, p.10)

따라서 미얀마의 칠기는 바간시대 이래로 존속해왔으며 이후 따웅우(Taungoo), 잉와(Inwa) 그리고 니야웅얀(Nyaungyan)시대를 거쳐 점차 발전해왔으며 곧바웅(Konbaung)시대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바간시대 칠기는 장식적인 그림 없이 밋밋한 검은색 단색으로만 되어 있었다. 잉와시대에 들어 칠기에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니야웅얀 시대에는 칠기 표면에 섬세한 철선을 새겨넣었다. 곧바웅시대가 되면서 칠기 예술은 쉐자와(Shwezawa, 금박 칠기), 떠-요(Tha-yo, 부조 칠기) 그리고 흐만시쉐차(Hmansishwecha, 유리과 금 상감 칠기)로 발전했다.

산업과 생산

기록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칠기 산업이 운영되는 마을은 33곳으로, 산주의 링케이(Linkhay), 짜잉통(Kyaington), 인레(Innlay), 헤야리워마(Heyarywama), 모네(Moene), 핀다야(Pindaya), 왕간(Ywangan), 그리고 핀라우(Pinlaung), 사가잉지역의 짜웃까, 흐타나웅운(Htanaungwun), 마웅타웅(Maunghtaung), 와떠여(Ywathayar), 시푸타라(Siputtara), 짜보(Kyaboe), 바욱띤돈(Baukthindon), 메오(Meoh), 시떠(Sitha), 말웨(Malwe), 레인더(Leindaw), 윗떼(Wetthe) 그리고 바마욱(Bamauk), 만달레이지역의 바간, 나구(Nagu), 냥우(Nyaungoo), 밍가바르(Myingabar), 잉와 그리고 만달레이, 마궤(Magway)지역의 살레(Sale). 뽀알로(Pyalo) 그리고

민트차이(Myintchay), 바고(Bago)지역의 카마르세(Kamarse), 바고(Bago) 그리고 뻬예(Pyay), 라키네(Rakhine) 주의 므라옥-우(Mrauk-U)지역이다. 하지만 산주의 일부 지역에 있는 칠기 노동자 수는 만달레이지역의 바간-미인가파(Bagan-Myingapa)와 사가잉지역의 짜웃까에 있는 칠기 노동자들 수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칠기 생산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칠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칠기는 버마 왕정 시대에는 왕실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중화되었다. 칠기 제품은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왕실 용품, 종교용품, 개인 장식품 그리고 악기이다. 왕실 용품에는 궁궐의 기둥, 우산, 천장 그리고 침상 등이 있는데 주로 옷을 새겨넣거나, 금박 옷칠을 하거나, 부조 무늬에 옷을 칠해 장식한다. 그리고 칠기는 외교에서 선물을 교환할 때 필수적인 선물 중 하나가 되었다. 1795년과 1802년에 미얀마를 방문했던 영국 대사 마이클 사임스(Michael Symes)는 미얀마의 옷칠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칠기공예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얀마의 칠기공예는 3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얀마의 자랑스러운 것이다. 미얀마 왕은 비단, 보석 그리고 칠기를 선물로 준다. 다른 왕실 용품으로는 순-옥(hsun-ok), 빈랑(betel) 상자, 절인 차 상자 그리고 비-잇(bi-it) 또는 화장품 상자 등이 있었다. 작은 화장품 상자는 파우더나 다른 화장재료를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종교용품으로는 순터우탄(Hsuntawhtan), 순옥(Hsunok), 윤다웅파웅(Yundaungpaung), 따베익(Thabeik), 발우(alms bowl), 서랍장, 따베익틴 꺼랏(thabeiktin kalat, 발우를 받치는 받침), 흐순차잉(Hsunchaing, 도시락 상자), 라페톡(laphetok, 절인 차 상자), 타사웅(tasaung, 사원), 타케(take), 만파야(manpayay), 사다익(sadaik, 야자수잎이나 버마 종이로 된 문서를 보관하는 장) 등이 있다. 개인 장식품으로는 다웅랑, 사이타웅(saytaung, 약품상자), 예타가웅(yetagaung, 물잔), 니예캇(hnyeyekhwat, 옷칠된 술잔), 라페톡, 사이라익반(saylaikban, 껌 쟁반), 사이잇(sayit, 약품상자), 토네차웅타웁뻬(thonechaunghtaukbyat, 삼발이 쟁반) 그리고 윤사르페(yunsarpwe, 옷나무 탁자)가 있다. 악기로는 금박의 유리가 상감된 전통북, 오보에 그리고 실로폰이 있었다. (Ei Ei Han, 2003, p.6)

칠기 제작기법은 전통적인 장인-도제 제도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됐다. 바간지역의 칠기 제작기법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 칠기, 쉼자와(금박 옷) 그리고 사이윤(일본 옷)이다. 칠기 제품은 작은 선물이나 기념품에서 큰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일상생활 용품과 장신구도 있다. 전통 칠기의 예로 이예캇(yekhwat, 술잔), 순옥(발우상자), 꾸닛(kunit, 빈랑상자), 사이라잇반(saylaitban, 껌 쟁반) 그리고 화장품 상자 등이다. 쉼자와(금박 칠기)는 대부분 불상, 벽 장식, 사다익 등 종교용품과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이윤(Sayyun)은 일본식 옷칠인데 근대 기법을 융합한 것이다. 칠기는 품질과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쉼자와(금박 칠기)(참고 사진의 P.1)

2등급-말총 칠기(참고 사진의 P.2)

3등급-일반 칠기(참고 사진의 P.3)

4등급-사이윤(일본 칠기)(참고 사진의 P.4)



쉐자와(금박 칠기)(참고 사진의 P.1

말총 칠기(참고 사진의 P.2)



일반 칠기(참고 사진의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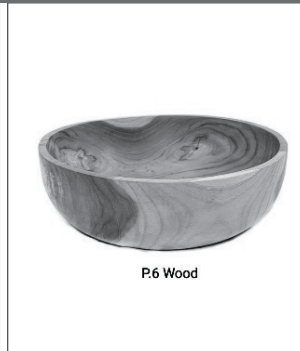
사이윤(일본 칠기)(참고 사진의 P.4)

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는 대나무[틴와(TinWa) 혹은 민와(myinwa) - 덴드로칼라무스(Dendrocalamus)에 속하는 대나무의 일종] (참고 사진의 P.5) 또는 나무[(바잉(baing), 렛판(let-pan) 그리고 티크 나무](참고 사진의 P.6), 말총(참고 사진의 P.7), 틱시(송진)(참고 사진의 P.8), 나옥차이(소 배설물)(참고 사진의 P.9), 아메떠요(고깃뼈)(참고 사진의 P.10), 진흙, 버밀리온(참고 사진의 P.11), 황색 옹황(참고 사진의 P.12), 인디고, 금판, 인진짜옥몬트(Ingyinkyaukhmont, 인진 돌가루)(참고 사진의 P.13), 흐타나웅세(Htanaungse, 아카시아 진액)(참고 사진의 P.14), 타마세(Tamase, 인도말구슬나무 진액)(참고 사진의 P.15), 그리고 티크나무 숯(참고 사진의 P.16)이다.(U San Yu, 2 Nov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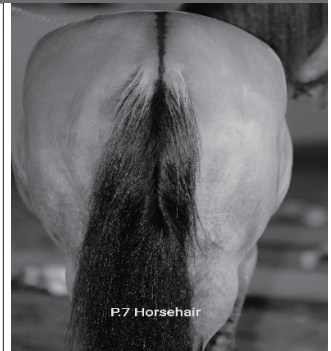
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



P.5 Bamb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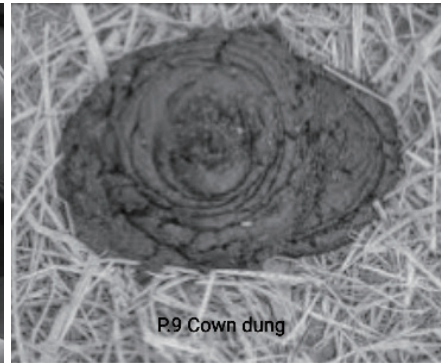
P.6 Wood



P.7 Horsehair



P.8 Resin



P.9 Cow dung



P.10 Meat bone



P.11 Vermillion



P.12 Yellow stone



P.14



P.13 Ingyin stone



P.15 Neem gum



P.16 Teak Charc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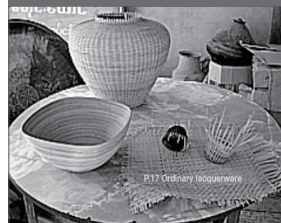
기본 재료(아뿌티, Aphyuhtee)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 대나무 마디에 가까운 부분 자르기
2. 대나무 조각내기
3. 대나무대 끝부분 가지런하게 자르기
4. 마디 부분 자르기
5. 대나무대 쪼개기
6. 대나무대 끝부분 쪼개어 나누기
7. 대나무대를 길게 다듬기

길게 잘 다듬어진 대나무 조각이 준비되면 다음 네 가지 기본적인 재료를 만든다. 1. 나선으로 감아 물건 만들기, 2. 대나무를 엮어서 물건 만들기, 3. 꼬아서 물건 만들기, 4. 몸체 만들기다. 칠기는 보통 검은색(송진), 붉은색(수은 황화물), 노란색(사이단), 파란색(메네-인디고) 그리고 초록색(티시와 사이덴 혼합물) 5가지 색으로 장식된다. 티시(송진)는 칠기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이다. (U San Yu, 2 Nov 2020)

바탕(아뿌띠, Aphyuhtee)면의 문양에 따라 칠기는 6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칠기(요요윤, Yoeyoeyun), 선을 그려 넣은 칠기(카닛윤, kanyityun), 금박 칠기(쉐자와윤, Shwezawayun), 고깃뼈를 이용하여 부조로 만든 칠기(떠요윤, Thayoeyun),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을 넣은 칠기(흐마니쉐차윤, Hmansishwechayun) 그리고 옷칠한 불상[만(Man) 혹은 만파야 (Manphaya)]이다.

일반칠기(요요윤)(참고 사진의 P. 17)



일반 칠기는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다. 여기에는 검은색과 붉은색만 사용된다. 특히 가정용품과 보통의 종교용품은 일반 칠기에 속한다(Khin Maung Nyunt, 1996, p.16).

새김 기법의 칠기(카닛윤) (참고 사진의 P. 18)



붉은색 또는 검은색 칠기에 철침으로 어떤 패턴 없이 문양을 그린다. 만약 장인이 숙련된 사람이라면 전체 문양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칠기 면에 철침으로 꽃, 사진, 풍경 그리고 불교 이야기를 담은 문양을 새긴 후 색을 채운다.(U San Yu, 2 Nov 2020)

금박 칠기(쉐자와윤)

금박으로 장식된 칠기를 금박 칠기라고 한다. 검은색 옷칠을 한 위에 필요한 문양을 그리고 인도멸구슬나무 진액과 노란색 옹황가루 혼합물로 문양 가장자리를 따라 선을 그린다. 음각된 문양에 티시(송진)를 바른 후 그 위에 금박을 붙인다. 바간 우 킨 마웅 지(Bagan U Khin Maung Gyi)에 따르면 쉘자와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Khin Maung Gyi, 1981, pp.31-32). 하지만 킨 마웅 니운트(Khin Maung Nyunt) 박사에 따르면 쉘자와 용기는

미얀마의 왕정시대에 오로지 종교용과 왕실용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 두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기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나는 킨 마웅 니운트의 견해에 동의하고 싶다. 오늘날 비싼 금값으로 인해 이 유형의 칠기가 가장 비싸다. 몇몇 고대 사원과 수도원의 벽과 천장은 쉐자와 기법의 판넬로 덮여 있다.

고깃뼈를 이용해 부조형으로 문양을 새겨 만든 칠기(떠요운) (참고 사진의 P. 20)



떠요운은 티시(송진)와 떠요를 혼합하여 만든다. 떠요는 구운 뼈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이다. 킨 마웅 니운트박사에 따르면 떠요운은 7~10세기경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명대에 사라졌다고 한다(Khin Maung Nyunt, 1996, p.17). 현재 이 유형의 칠기는 지금도 여전히 바간에서 제작되고 있다.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 칠기(Hmanishwechayun) (참고 사진의 P. 19)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이 된 칠기는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력 때문에 매우 비싸다. 필요한 문양에는 채색 유리를 부착하고 칠기의 검은 바탕에는 금박을 입힌다. 이 유형의 칠기는 왕좌, 사다익(sadaik), 접는 필사본과 야자수 필사본의 표지, 북, 오보에 그리고 실로폰, 사원과 쿰타웅(kumtaung)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U San Yu, 2 Nov 2020) 유리나 금을 상감하는 칠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증거는 1794년의 야자수 필사본 표지이다. (Fraser Lu, 1985, 31)

옷칠이 된 불상(만 또는 만파야) (참고 사진의 P. 21)



이는 옷칠로 만든 가볍고 속이 빈 불상을 의미한다. 잘 마른 옷칠이 된 불상을 만들려면, 먼저 진흙이나 고리버들 세공법으로 만든 대나무로 형태를 만든다. 그다음 만들어진 형상에 벗짚 잣물을 한번 덧바른다. 승려의 의복과 장로의 터번을 옷으로 흠뻑 적서 형상들을 반복해서 감싼다. 그런 다음 옷을 빨아들인 면이나 비단을 겹겹이 반복해서 붙여서 속이 빈 성상을 만든다(Than Tun, 2011, p.46). 만파야는 중국 남조시대(420-589 AD)에 처음으로 숭배되었다. 그 후 일본에는 하쿠호시대(645-729 AD)에 도입되어 만파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덴표시대((729-766 AD)

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만파야는 부달린(Budalin)의 니아웅간(Nyaunggan)에 있는 것으로, 1766년 9월 10일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얀마에서 만파야를 만들었던 마을은 쉐보(Shwebo)와 예 우(Ye Oo)지역, 특히 쿠뽀 시더(Kuphyu Sitha), 나밧사잉(Nabatsaing), 흐팔란콘(Hpalanhkon), 말웨[Malwe, 현재의 힌더(Hinthar) 마을],

매 오(Mae Oh), 이와 띃(Ywa Thit), 린 사렉 콘(Lin Sarek Kone), 레인 도 인파토(Lein Daw Inpahto)이다. 만파야 산업에 쓰이는 띃시 송진의 주요 재료는 쿠뽀 시떠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카두마(Kaduma) 마을에서 가져온다. 만파야 기법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왔으나 1929년 이후 만파야 산업은 쇠퇴하였다. (Than Tun, 1983, pp.54-62)

칠기 제작과정

첫 번째 단계(기본 재료)



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는 대나무와 나무다. 대나무로 만든 칠기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 종류가 있다.

1. 얇은 대나무를 꼬아 감싼 것(예: 꽃병, 예타가웅, 다웅랑, 그릇 덮개 등)
2. 세 개의 얇은 대나무대로 매듭을 짜서 꼬아 만든 것(예: 빈랑상자. 물컵, 쌀그릇 등)
3. 아주 얇은 대나무로 필요한 문양을 짜는 것(예: 작은 물건)

나무로 만든 기본적인 칠기로는 찻쟁반, 상자, 탁자 등이 있다. (Khin Maung Gyi, 1981, pp.31-32)

두 번째 단계(검은 바탕 재료)



바탕 재료에 띃시(송진)를 바른다. 이를 떠요 카잉(반죽 주입, grouting) 또는 옷칠이라고 부른다. 띃시를 바른 후 3일 동안 지하실에 보관한다. 이를 타익띃(taikthwin, 송진을 건조하기 위해 지하에 두는 것)이라고 한다. 3일 후 지하실에서 꺼내 다시 띃시를 바르고 3일간 지하에 둔다. 그 후 수동 물레에 놓고 돌려서 내부를 매끄럽게 만든 다음, 소 배설물 가루와 띃시를 혼합한 떠요를 발라서 다시 3일간 지하 저장고에 보관한다. 3일이 지나면 바탕 재료를 가벼운 벽돌로 문

질러서 말린다. 왕겨 재와 틴시를 혼합하여 만든 일종의 띠요를 바른 후 3일간 지하에 놓아둔다. 그리고 손으로 돌려서 매끄럽게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송진을 발라 3일간 지하에 놓아둔다. 좋은 검은색 바탕 재료를 얻으려면 지하실에 5번을 드나들어야 한다.

왁스 광내기



칠기 공정 작업과정이 완료되면 돌가루로 칠기를 부드럽게 문질러 광을 낸다. 그다음 틴크 숯가루를 문질러 더 광이 나게 한다. 광내기 작업 후에는 칠기 안쪽에 나무 송진과 버밀리온을 혼합하여 미얀마 전통 회화의 4가지 기본 형식이 칠기에도 적용된다. 이 4가지 기본 형식은 카노테(Kanote), 카피(Kapi), 가자(Gaza) 그리고 나리(Nari)이다. 이 말은 팔리어이다. 카노테는 돌돌 말린 연꽃 줄기, 연봉오리 그리고 활짝 핀 연꽃 또는 꽃문양이나 아라베스크 문양이 들어간 소용돌이

조각, 새김 그리고 채색



먼저 물건의 표면에 수작업으로 문양의 윤곽선을 자유롭게 새겨넣는다. 이 일은 보통 남성이 한다. 카피는 원숭이나 그와 유사한 종류의 동물을 묘사한 것을 말하며 그림에 묘사된 행동이나 움직임 여성은 하지 않는다. 문양에는 송진과 버밀리온 혼합물에서 얻은 붉은 색을 칠한다. 그런 다음 카피라 불릴 수 있다. 가자는 코끼리, 말, 소 또는 산, 바위, 나무줄기와 같은 커다란 대상을 그리는 것이다. 나리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고대 미얀마 미술에서 원근법(가깝고 먼 것, 밝고 어두운 것, 낮고 높은 것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선과 색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얻는다. 다 마르면 칠시를 이용해 초록색으로 윤곽선을 그린다. 그다음 송진을 나무에 바르고 다. 예술가는 자유롭게 문양을 그려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Khin Maung Nyunt, 1996, pp.117-118) 천으로 문질러 깔끔하게 다듬는다. 그리고 5일동안 지하실에 놓아둔다. 5일 후 필요한 색을 칠한다. 이 채색작업은 오로지 여성만 하고 남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칠기에 사용되는 모티프는 연꽃, 난, 신화 속의 동물, 악마 그리고 천신이다. 가장 선호하는 상징은 9개의 행성과 12 황궁도이다. 자타카(Jataka, 부처의 일생담)의 장면과 일화, 잘 알려진 민담과 우화, 탐과 관련된 전설 그리고 낮(Nat, 영혼) 이야기를 묘사한다. 장인의 이름과 날짜, 혹은 구매자가 원하면 그의 이름과 소원을 새겨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남겨 둔다.

칠시 시장

칠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주목할 만한 방법은 주로 파고다 축제 기간의 상점이나 가게이다. 일부 제품은 무역업자나 상인을 통해 판매된다. 그래서 니아웅 오(Nyaung Oo)에서는 칠기를 사고파는 곳을 아직도 윤 단 압(Yun Dan Yap)이라고 부른다. 칠기 무역과 관련하여 칠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제조자/생산자
2. 생산자-배급자
3. 소매업자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파는 가게를 열고 있다.

칠기 산업에 대한 전망

오늘날 옷칠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칠기를 제작하는 지역도 축소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료 수급, 시장 축소, 숙련된 노동 인력의 부족, 빈약한 자본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 때문이다. 이외에 한 가지 큰 문제는 칠기 노동자에 대한 부유한 사람들의 착취이다. 이런 이유로 칠기 노동자들은 다른 수익이 좋은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원료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용하기 쉬운 플라스틱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품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보급되면서 칠기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플라스틱과 철제품은 전통적인 칠기를 급속도로 대체하면서 칠기 산업을 죽이고 있다. 칠기 산업은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생존투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1. 은행은 칠기 산업 운영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에서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칠기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3. 칠기 훈련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노동자를 배출하기 위한 무료 훈련을 제공한다.

결론

바간시대 이래 미얀마의 칠기 산업이 번창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칠기 산업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쾰바웅시대였다고 한다. 이 시기는 식민지시대로 칠기 기술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때였다. 1924년 미얀마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식민지 경제의 일부로서 칠기공예 학교가 설립되었다. 1924년부터 1956년까지 3년 과정에 약 30명의 학생이 매년 입학하였다. 1962년 2년 과정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칠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입은 충분하지 않고 원료는 점점 부족해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있다. 시장 부족으로 인해 칠기와 칠기 산업은 이제 보존해야 할 문화가 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Dagon Natshin, (1996), "Pan Yun ", Ten Traditional Myanmar Arts and Crafts, Yangon, Sarpay Beikman Press.

Epigraphia Burminica, Vol.I, M.E. 474-600, (1972), Yangon, Ministry of Culture, Printing and Publishing Corporation.

Fraser Lu, Sylvia, (1985), Burmese Lacquerware, Bangkok, The Tamarind Press

Khin Kyi Kyi, (1968), "Myanmar Lacquerware", Ngwetarye Magazin, No.94, Yangon, Ngwetarye Press

Khin Mg Gyi, (1981), Myanmar lacquer, Yangon, Sarpebeikman Press.

Khin Maung Nyunt, Dr, (1996), "Myanmar Lacquerware in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Gurdian Magazine, Vol. 44, No. 8.

Myanmar Dictionary (Concise), Vol. III, (1979), Yangon, Sarpay Beikman Press.

Than Htaik, Dr, (2004), "Myanmar Lacquerware Artifacts", Entrepreneur, Yangon, Tini Press.

Than Tun, Dr. (1981), "Lacquer Images of the Buddha", Yatanamon Magazin, Vol. viii, No.13.

Than Tun, Dr, (2003), Blanks in Myanmar History, Yangon, Phowa Offset.

U San Yu, 4 March 1980, No.35, Uzana ward, Bagan, 2 November 2020